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

2019 소식지. Vol. 376

나눔



나눔이란
함께 나누는 것
나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2014. 13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미션
(Mission)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합니다.

비전
(Vision)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교회와 지역사회가 연대하는 복지 공동체 구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사회복지기관



본당 중심의 지역사회
발전을 지향하는 교구 사회복지회



미래 사회복지를
선도하는 전문 사회복지기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네트워크기관

Contents

**법인 소개 및
소식**

- 04 인사말씀
- 05 우리들의 이야기
- 08 법인소개
- 10 주요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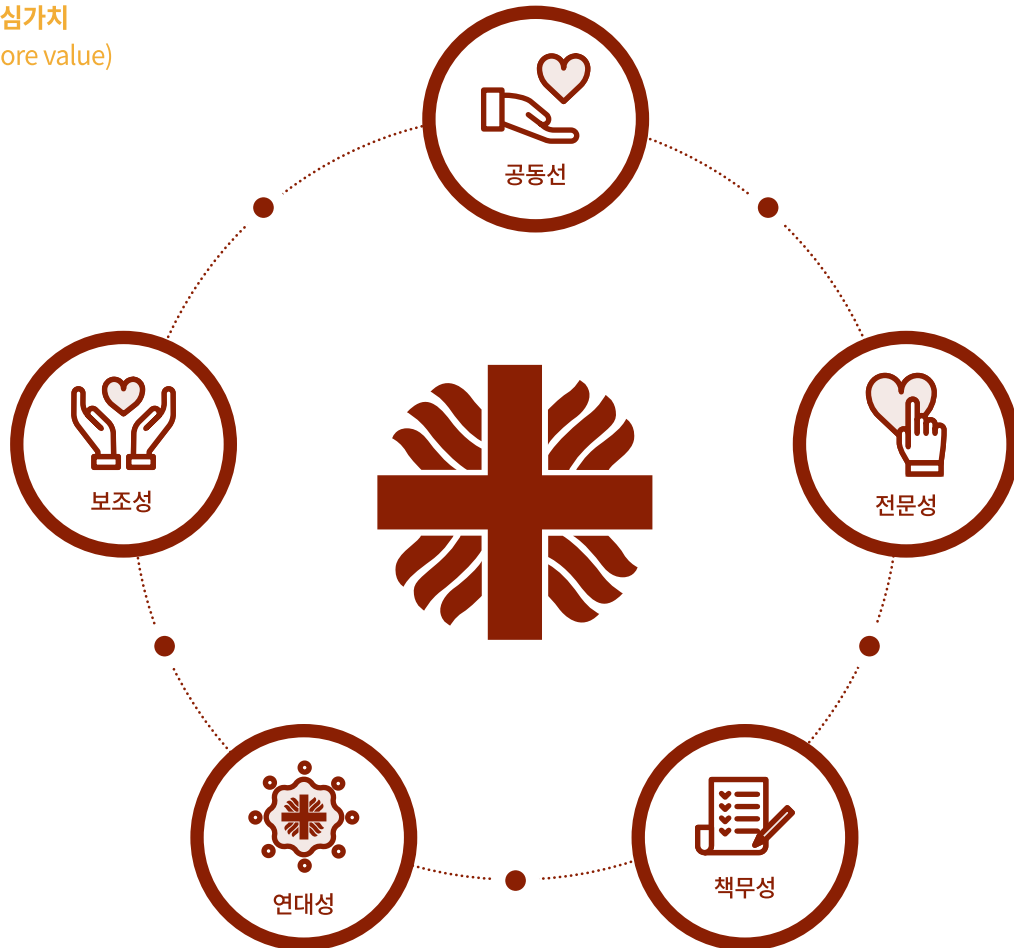
**生生 사회복지
현장 이야기**

- 14 복지현장
- 16 축제현장
- 20 교육현장
- 22 토론현장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핵심가치
(Core value)



나눔을 키워가는
사람들

26 나눔은 기쁨
28 나눔은 실천

후원보고

32 후원보고
38 후원자 명단
44 후원안내
45 후원 신청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소속으로,
서울 지역 내 가톨릭 사회복지활동을 대표하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네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다면 나 또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다.”

찬미 예수님!

2019년 2월부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한 식구가 된 김원호 바오로 신부입니다. 본당이 아닌 법인 사무국으로 출근하는 것이 아직 낯설고 어색한 것을 보니 한동안은 쉽지 않은 직장생활에 적응하느라 애설 것 같습니다. 출퇴근길 전철 안에서 만나는 무수히 많은 직장인들에게 남모를 동료애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얼마 전 이런 광고를 보았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퇴근 후에 뭐할거야?” 동료의 질문에 지친 표정이 가득한 다른 동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퇴근 후에 뭐 하는 사람도 있나?” 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기운도, 마음도 없어 보이는 익명의 동료들을 보며 남의 일 같지 않은 동질감도 느껴집니다. 또 어느 드라마에서는 직장 상사가 퇴근을 앞둔 부하직원이 싱글빙글하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퇴근하는 게 그렇게 좋아?” 부하직원은 웃음 가득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애인 만나러 가서 좋은 건데요.”

그러고보니 피곤함이 가득한 퇴근길 만원 지하철 안에서도 드라마의 부하 직원처럼 심각하지도, 피곤하지도 않아 보였던 소수의 사람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 연인,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사람, 소

중한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 이동하는 사람, 호기심으로 가득 찬 관광객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대, 나를 알아주는 사람과 만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기대, 맛있는 것을 먹고 새로운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기대, 이런 기대들이 그들을 웃을 수 있게 만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은 점점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런 세상을 한탄하며 종종 우린 무엇을 꿈꿀 수 있었고, 무엇을 기대하고 희망할 수 있었던 과거의 여유와 낭만을 추억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 과거에서부터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 바라고 희망한다는 것조차 사치로 여길 수 밖에 없었던 가난하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항상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단순한 연민을 넘어 기대한다는 것을 사치로 여기게 만들며 또 다른 가난과 소외로 우리를 내모는 사회와 기득권층에 반기를 드는 행위이며,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이 출발점 위에서 우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낙인되어 있는 혐오와 차별의 뇌관들을 제거하고 그곳에 공생과 상생이라는 꽃씨를 뿌리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겨우 살아갈 정도의 것이라도 쥐어주는 것에 감사해야 함을 강요받는 사회가 아니라, 먹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들을 바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인간답게 꿈꾸고 기대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다면 나 또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김원호 바오로 신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회장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직원들이 인사드립니다!

2019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이뤘습니다. 조직개편과 함께 근무환경도 환하게 바뀌었는데요. 법인사무국 직원들의 새로운 마음가짐을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재무행정팀



최근주 토마스아퀴나스 / 재무

최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합심하여 마련한 향후 법인의 새로운 비전인 『소외된 이들의 우선적 선택을 위한 구성원의 성장과 재정자립』의 可視的인 실현을 위해 저희 팀의 미션인 소통하고 신뢰받는 재무전문가로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창조적으로 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림 미카엘라 / 이사회, 인사관리

하느님의 사랑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더욱 많이 듣고, 배우고, 익혀 새로운 직무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고견 주시기를 청하며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경애 데레사 / 회계

쾌적한 사무공간에서 창의적인 사회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은 프란치스카 / 시설위수탁, 운영위원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재무행정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다현 에스델 / 서무

법인사무국 행정과 살림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바뀌가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

**이춘식** 대건안드레아 / 종합복지, 푸드뱅크마켓센터, 업무점검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복지 환경도 많은 부분 변화되고, 이후에도 더더욱 더 빠르게 변화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법인의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은 우리가 더 빨리 준비하고 더 많이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또한 법인사무국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더 많은 사랑과 헌신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이웃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영주 베로니카 / 영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영유아를 비롯하여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이 가톨릭 정신에 따라 운영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박동하 세례자요한 / 장애인복지, 노숙인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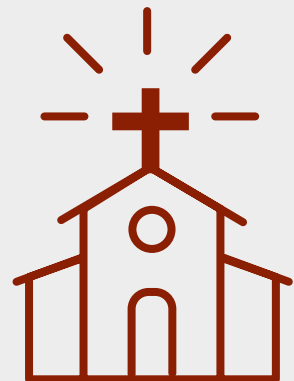
장애와 가난 등으로 소외된 이웃들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미 미카엘라 / 노인복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와 시설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산하 시설들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승아 실비아 / 여성복지, 인준단체 관리

새로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카리타스를 위해 애쓰시는 많은 은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육기획팀



장소영 올리안나 / 교육기획 총괄, 대외협력사업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사회복지법인 및 서울대교구를 대표하는 교회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유관 단체 및 교회기관과 정보교류, 연대, 협력에 정성을 다 하였습니다.

김태한 가브리엘 / 연구기획, 본당사회복지

사랑(Caritas)이 어떻게 우리 교회와 사회복지회의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김지민 스테파니아 / 교육

가치있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우리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함께 일하는지 생각과 마음이 연결되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것을 넘어 하느님의 사랑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함께합니다.

이성순 세라피나 / 나눔의목상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 중 하나인 사랑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지속적으로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돕는 나눔의 목상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목상회 피정을 통해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눔홍보팀



홍희정 아네스르즈 / 나눔홍보사업 총괄

우리 사회의 가장 낮고 소외된 곳,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소중한 분들의 귀한 나눔이 가치롭게 쓰일 수 있도록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원혜령 레아 / 모금, 후원자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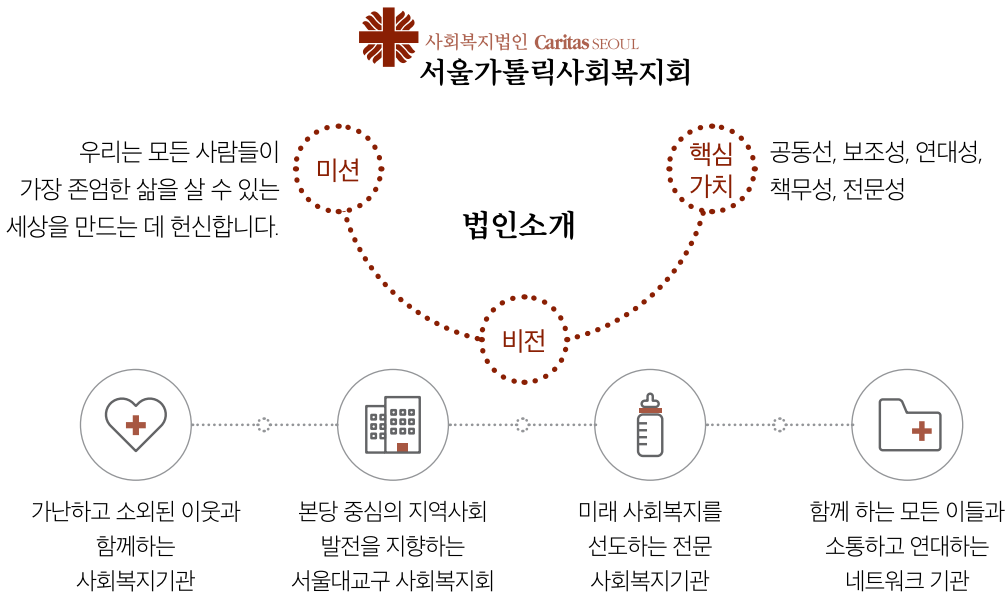
우리의 작은 나눔이 소소한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하 베드로 / 모금, 후원사업

가장 소외된 이웃분들을 위한 나눔 · 홍보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윤서 마리아 / 홍보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하는 마음을 봉헌합니다. 겸손된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일에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지역 내 가톨릭 사회복지활동 대표기관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위하여,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사회속의 가톨릭교회'로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모두가 인간으로서 품위와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1976년故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설립하셨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소속으로 서울 지역 내에서 가톨릭교회가 실천하는 사회복지활동을 대표하는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서울시내 240여 개의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 230여 개 본당과 연대하여 본당을 거점으로 한 지역사회 복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카리타스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전 세계 가톨릭교회 공식 사회복지기구
총 165개 회원국 등록, UN 협의기구 지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영문으로 'Caritas Seoul(카리타스 서울)'이라고 합니다. 'Caritas'란, '사랑, 애덕, 자선'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계명인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Caritas'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공식 사회복지기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1897년 독일 카리타스가 첫 설립된 이후, 1950년 9월 각 국에서 자선구호 활동을 하던 각각의 조직이 연합체를 만들어 탄생하였습니다. 카리타스는 전 세계 가톨릭교회가 사랑 실천과 사회 정의 구현에 헌신하도록 조력하는 기구로서, 현재 총 165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UN 협의기구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에 관한 자세한 소개, 주요 행사 및 일정, 가톨릭 뉴스 등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와 SNS(페이스북)에서 실시간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주요사업

본당 연계사업



본당사회복지 공모지원사업

매년 서울 내 각 본당 및 지구의 사회복지 활동을 보다 체계적, 전문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당사회복지사목 모범 및 시범본당

본당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의 본당사회복지 사목활동을 연구, 지원하여 본당사회복지사목의 롤 모델(Role-Model)을 제공함으로써 본당사회복지 사목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본당사회복지 자문위원회

본당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영성적,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적, 효과적인 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합니다.



나눔의목상회

나눔의목상회는 피정을 통해 하느님과 나, 이웃의 관계를 성찰케 함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본당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합니다.

장학사업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학생 및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

(한가족, 말가리다,
성모영보장학회)

저소득층
대학생

(요안나장학회)

북한 이탈
청소년

(선교200주년장학회)

복지시설운영

서울시 내 240여 개의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영·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노숙인복지



노인복지



의료복지



종합복지



지역자활



푸드뱅크마켓



문화복지

2019년 상반기(1월~6월) 주요뉴스

01 2019년 1월 4일(금) 2019년 신년미사 및 인사회



02 2019년 2월 12일(화) 김원호 바오로 부회장신부님 부임



03 2019년 2월 15일(금) 2019년 시설장 워크숍



09 2019년 5월 14일(화) 신천동성당 '카페나루' 카페수익금 전달식



11 2019년 5월 19일(일) 성가정입양원 30주년 기념식



08 2019년 5월 8일(수) 서품 2년차 사제연수



10 2019년 5월 16일(목) 2019년 가톨릭어린이잔치



04 2019년 3월 26일(화) 등록단체 인준규정 설명회



06 2019년 4월 7일(일) 2019년 장애인의날 기념 '제36회 한자리 축제'



05 2019년 3월 28일(금) 2019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심포지엄 “본당과 사회복지현장에서 사랑 실천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07 2019년 4월 24일(수)~4월 26일(금)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전국교구 실무자 연수'



12 2019년 5월 28일(화) 가톨릭종교교육자회 기부금 전달식




14 2019년 6월 10일(월)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걷기대회



13 2019년 6월 1일(토) 나눔의목상회 회원의날





生生 사회복지 현장 이야기

복지 현장

- 14 “아이들의 집으로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주세요.”
- 성가정입양원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축제 현장

- 16 “우리 함께 해피 투게더~”
- 2019년 장애인의날 기념 ‘제36회 한자리 축제’
- 18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잔치날”
- 2019년 가톨릭 어린이잔치

교육 현장

- 20 “교육의 맛, 흥미를 느끼다.”
- 2019년 정제성 기초교육
전국 카리타스 산하시설 신입직원 공동교육

토론회 현장

- 22 “본당과 사회복지현장에서 사랑 실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 2019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심포지엄

“아이들의 집으로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주세요.”

성가정입양원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박규리 입양상담과장
성가정입양원



2019년 5월 19일 성가정입양원에서는 뜻 깊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유경춘 주교님 주례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설립 3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미사 봉헌과 ‘사랑나눔 사랑이음’ 바자회였습니다. 기념식을 통해 지난 30년간 입양 사업에 헌신한 이진희 데레사(정릉성당), 정계순 마리아(정릉성당), 최은주(재능기부), 민혜숙(입양가족 자조모임 전 대표) 봉사자와 (주)베베쿵, (주)안다자산운용, (주)처브라이프, (주)태광마텍스 후원자를 표창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기념행사에는 500여 명의 봉사자, 후원자 그리고 입양가족이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고 3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정현종의 시 '방문객'에서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며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함께,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입양도 그렇습니다. 2kg의 작은 몸으로 태어나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애를 태우던 아이가 엄마아빠 품에서 개구지게 장난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발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던 아이가 또래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친부모로부터 이별의 아픈 사연을 하나씩 품은 아이들이 부모님들 품에서 환하게 웃고 사랑을 말할 때는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1989년 제 44차 세계성체대회 정신에 따라 설립된 성가정입양원은 지난 30년간 하느님께서 지어내신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내는데 앞장섰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전쟁고아들에게 가정이 필요했던 우리나라는 해외 입양 1위 국가라는 부끄러운 이름을 남겼고, 2008년 이전까지 해외입양이 전체입양의 70%이상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어떤 이는 국내에서 크는 것보다 해외에서 크는 것이 나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가정입양원은 '우리아기 우리 손으로'라는 구호아래 국내입양만을 진행해 왔고, "낙태위기의 모든 생명은 태어날 권리가 있으며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중심의 입양,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권에서 아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입양과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아동의 건강한 정체성 형성을 돕기 위한 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봉착한 한국사회에서 우리아기를 우리가 잘 키워내자는 의지를 갖고 실천해온 성가정입양원의 발자취라 볼 수 있고 이는 매우 소중한 발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입양은 아동과 부모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개인적인 사건인 동시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영구적 가정을 제공, 보호하는 공적 아동복지서비스 영역에 해당되기에 입양기관,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해야 합니다. 입양인들은 현재의 사회 인식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건강히 통합해 나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성가정입양원은 그 곁에서 함께 동반할 것입니다.

입양에 대한 국내 인식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입양부모를 만나기 어려운 남아아아와 장애를 가진 아이에 대한 기피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앞으로 성가정입양원은 이 숙제를 해결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성가정입양원에서 특별한 미사가 있습니다. 입양부모님, 입양아동, 후원자, 봉사자들이 모여 아이들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봉헌하는 미사입니다.

“우리 함께 해피 투게더~”

2019년 장애인의날 기념 ‘제36회 혼자리 축제’

최금란 센터장
비둘기주관보호센터



영화 말아톤의 주인공인 자폐성장아인 초원이는 얼룩말을 좋아해서 길가는 여성의 얼룩말 무늬 치마를 얼룩말 엉덩이로 착각하여 쓰다듬습니다. 초원이는 몸은 20살이지만 5살의 세계를 살고 있는 특별한 청년이지요.

서울가톨릭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의 주 고객은 영화 속 초원이와 같은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들입니다. 비장애인들은 성장하며 보호자, 친구들, 마스크 등 다양한 환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상 살아나가는 방법을 배우지만, 발달장애인들은 배우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사업에서는 혼자리축제, 나들이, 캠프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참여하게 하고 지역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올해로 36주년을 맞이하는 혼자리축제는 교회 안에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입니다. ‘우리 함

께 해피 투게더’라는 주제 아래 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는 농아선교회, 바오로선교회, 시각장애인선교회, 발달장애인부모회 등 장애인 단체와 봉사자, 후원자들이 함께 모여 4월 7일(일) 대방동성당 대성전에서 유경춘 주교님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신부님들의 공동집전으로 기념미사(1부)를 봉헌하고, 모범 장애인 신자 5명에 대한 시상식(2부)을 진행하였습니다.



3부 행사는 장애영역별로 문화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협의회에서는 꽃구경, 동물구경도 하고,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에버랜드 나들이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설의 슬기(가명)씨는 떠나기 두 달 전부터 달력 날짜에 굵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에버랜드 글씨를 써놓으셨지요. 재훈(가명)씨는 날짜를 확인하느라 하루에도 10번 넘게 반복해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용인들도 표현은 하지 않지만 모두들 마음이 들뜨고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4월 30일, 손꼽아 기다리던 나들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눈부시게 화창한 날씨 속에 화려한 봄꽃들과形形色색의 조형물들 사이에서 사진도 찍고, 바람을 가르

며 몸을 날려주는 놀이기구를 타며, 사파리 동물들은 볼 때 마다 신기했습니다.

이용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음식에 손을 대기도 하며, 상점에서 값을 치르지 않은 물건을 들고 나오고, 일행을 놓쳐 길을 잃어버리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지만 비장애인들의 이해와 배려 속에 무사히 혼자리 축제를 마쳤습니다.

아직 발달장애인들은 세상살이에 미숙하고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 오늘도 조금씩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장애', '비장애'라는 말이 없어지는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해피 투게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잔치날”

2019년 가톨릭 어린이잔치

배석란 원장
해그린 어린이집



가톨릭어린이집협의회에서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소속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5월 성모 성월과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가톨릭 어린이잔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어린이잔치’를 통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소속 보육교직원들에게는 공동체성과 어린이집간의 연대감을 향상시키고,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는 명동성당 순례와 성직자·수도자와의 만남을 통해 유아 신앙교육의 씨앗을 뿌리고 가톨릭 영성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톨릭 어린이잔치’는 문화체험활동인 공연 관람과 생태 체험활동을 통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즐거운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래 지난 2019년 5월 16일 12

번째 ‘잔치’가 진행되었으며 매년 500여 명 가량의 만 2~5세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대잔치로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하느님 사랑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어린이집협의회 소속 수녀님과 원장들이 매년 함박웃음으로 참여하게 될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행사 당일 즐겁고 안전한 활동의 진행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역할을 나누어 담당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명동성당의 순례를 지원해주신 주교님과 신부님들께서는 “귀하다”, “예쁘다”, “사랑스럽다”라는 인사로 어린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며, 사랑하는 마음과 방법, 그 사랑의 마음에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함께 하느님 사랑을 노래하는 어린이들을 바라보며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교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은 어린이들은 ‘즐거운 지구 살리기’ 생태체험 활동으로 멸종위기의 동물 그림이 그려진 ‘एको백 꾸미기’와 파릇파릇한 싹이 돋아난 토마토, 가지, 고추 등의 ‘모종심기’ 활동에 참여하였고, “작곡가와 함께하는 세계 음악 여행”을 테마로 진행되는 ‘음악 공연’을 즐겁게 관람했습니다.

행사 당일, 성당에 들어서며 높은 천장과 제대를 바라보곤 “우와, 멋있다!”, “신기하다!”라고 말하며 연신 감탄하던 모습과 모종을 심으며 “잘 자라라~”, “만나서

반가워”라고 말하며 흙을 덮어 심는 어린이들의 모습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종교색이 짙게 드러나지 않는 부담 없는 순례활동과 가톨릭 어린이집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만족하며 법인과 원장님들의 지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보육교직원들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가톨릭어린이집협의회가 공동으로 후원하는 ‘가톨릭 어린이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가톨릭 영성에 기반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 밭’을 함께 가꾸어 가는데 온 마음을 다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교육의 맛, 풍미(風味)를 느끼다.”

2019년 정체성 기초교육

전국 카리타스 산하시설 신입직원 공동교육

김지민 담당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교육기획팀

맛음식 따위를 혀에 댈 때에 느끼는 감각,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느끼는 기분

2019년 정체성 기초교육 전국 카리타스 산하시설 신입직원 공동교육에 참여했던 서른 한명의 교육생과 실무자, 그리고 많은 도움과 더불어 기도로 응원해 주신 분들을 기억하며 모두가 함께여서 기쁘고 의미있었던 교육의 이야기를 풍성한 맛으로 비유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2019년 7월 2일, 1박 2일의 여정으로 자연 경관이 수려한 꽃동네대학교에서 총 9개 교구 16개 시설의 실무자가 모였습니다. 본 교육은 2015년부터 전국교구 사회복지회(국) 교육담당 실무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업으로 만든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교육입니다. 카리타스 정체성에 대해 각기 다른 교육 중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교육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첫 공동교육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교육이었습니다. 전국단위 실무자들이 서울과 대전을 오가며 여러 단계를 거쳐 보다 더 세심하게 준비할 수 있었지요. 무엇보다도 준비 내내 어떻게 하면 산하시설 직원들과 이 어렵고도 중요한 정체성이란 것을 교육으로만 그치지 않고 공감하며 쉽게 이해되고 함께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이 계속되었습니다. 교육 참가자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시설, 그리고 법인과 카리타스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체성 교육은 준비하는 사람도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도 모두에게 머리를 가우뚱하게 만드는 조금은 부담스런 교육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쉽게 답을 할 수 있거나 간단하게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이틀 간의 귀한 시간을 내어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교육에서 무엇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나는 어떤 교육이 좋았지?' 떠올려 보니,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거나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거나 귀에 쏙쏙 잘 알아듣게 설명해주거나 교육환경이 좋았거나 맛있는 간식이 있던 그런 교육들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점들을 잘 구성해 입도 즐겁고, 동료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정겹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에 대하여 카리타스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 곧 정체성에 한걸음 다가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보다 여럿이 모여 먹는 밥이 더 맛있듯이 이 모든 교육과정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서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번 교육에 대한 몇 가지 맛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리타스(Caritas)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 하는
사람들인가?



가치 있는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달달한 맛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교육은 업무로 지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육의 꽃! 바로 간식입니다. 교육장에 들어서는 순간 입가에 미소를 번지게 했던 카리타스(Caritas) 유(U)!! 모 편의점을 패러디하여 냉장고를 구비한 세심한 세팅과 아이스크림, 차, 과일, 비타민 등 골라먹는 재미까지 더해진, 입이 즐거운 교육!! 오래도록 기억나지 않을까요?

감칠맛으로 하나되는 맛

첫 시작은 오프닝과 함께 선물처럼 보내오신 각 교구 사회복지회(국) 신부님들의 환영사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신부님들마다 특색 있는 인사말은 왠지 더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때로는 유쾌한 웃음을 주는 감칠맛이 풍부한... 역시나 우리는 카리타스인이었습니다.

알수록 궁금해지는 맛

본 교육의 주제는 '나의 존엄성', '카리타스는 000입니다', '카리타스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등입니다. 특히 나의 존엄성은 나-행복-이웃, 인간-그리스도교-카리타스의 관계에서의 근원적 접근을 통해 나를 중심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적 요소를 살펴보면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각자의 인생 체험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함을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을 그래프로 그리는 작업을 진행하며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나눔과 섬김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모든 실천의 기본논리가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알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 개인의 취향으로 느껴보는 궁금해지는 맛.

'카리타스란 인간과 세상이 생겨난 이유는 하느님의 사랑이고 개인차원에서는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실천이며 조직차원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실천으로 세상에 "사랑의 문명"을 만들어 간다는 것'
(꽃동네대학교 카리타스학과 도건창교수)

서로 통하는 맛

교육받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나에 대해 알아보는 것', '사람은 사랑할 때 사람답다', '카리타스의 가치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모든 끝에는 사람이 있다', '많은 분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초심을 회복해내리라' 등 여러 답변이었습니다. 뭔가 시원하게 통하는 맛!!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이유, 그 공동의 사명과 소중한 가치를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현장에서 계신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며 축복을 빕니다. 가치있는 일을 같이 하는 것.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제게도 특별했던 맛갈스러운 교육의 맛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본당과 사회복지현장에서 사랑실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김태한 담당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교육기획팀

2019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심포지엄



그리스도에게서 언제나 새로운 힘을 이끌어 내는 수단인 기도가 실질적으로 또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느님께 기도하며 바치는 시간은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의 효과적인 봉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봉사의 마르지 않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속주의와 행동주의에 직면하여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여야 할 때입니다.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의 빛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이 회칙을 통하여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권고입니다.

- 교황 프란치스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회칙 36항, 37항, 39항 인용

위 내용은 교황 프란치스코의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회칙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 문구에서 찾을 수 있었고, 심포지엄을 마치고 나서 이 심포지엄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도 이 문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복지회에서는 본당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하고, 왜 실천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교육이나 워크숍, SNS, 소식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리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서울대교구에서 설정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의 해”를 맞이하면서 본당과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에서부터 이 심포지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리타스라고 하는 개념과 실제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있는 사랑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면 무엇이 다를까? 라는 궁금증을 계속 안고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을 기다렸는데, 막상 심포지엄을 통해서 그 연구들에 대한 결과를 듣고 나니 너무 놀랍게도 단어만 다를 뿐 그 의미는 우리가 그 동안 알려왔던 카리타스의 개념과 동일하게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당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원봉사의 활동도 우리나라의 평균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사랑의 실천이 이뤄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교육을 담당하며 카리타스에 대해 아직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실천까지 이어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본당이든 시설이든 카리타스라고 하는 개념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



지만 카리타스의 의미를 충분히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당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의 과정 속에서 카리타스가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심포지엄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맨 앞에 적었던 회칙의 문구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신앙인이라면 하느님께서 먼저 내어주신 사랑과 그 사랑을 체험한 이웃들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을 체험하는 그 시간들, 그것이 기도가 되었든 명상이 되었든 간에 충분히 그 시간을 마련하여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우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도 본당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돌봄을 통해 내적인 힘을 길러 더 많은 사랑의 체험을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나눔을 키워가는 사람들

나눔은 기쁨

26 “순간순간을 기쁘게 사십시오.”

- 제133기 나눔의목상회를 다녀와서

나눔은 실천

28 “우리 동네의 새로운 한끼100원 업체를 소개합니다.”

“순간순간을 기쁘게 사십시오.”

제133기 나눔의묵상회를 다녀와서

박동하 담당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복지팀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13일부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이하 법인)의 한 식구가 되어 장애인복지와 노숙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동하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제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시기로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게 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을 냉담자로 지내오면서 하느님의 사랑이나 신앙에 대한 믿음보다는 제 자신의 소신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제가 법인에 오기 전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일선 복지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장애와 가난 등으

로 소외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고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게 만든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제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어느 순간 인가부터 제가 만나는 사람들, 특히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공감하고 위로하기보다는 복지사업의 대상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보에만 귀를 기울이고 기계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처음 몸담았을 때 서비스를 제공했던 분들에게 들었던 짧은 감사의 인사 한마디와 작은 미소에도 큰 위로를 받고 기쁨을 느끼던 모습에서, 어떤 감사의 인사를 들어도 감정이 메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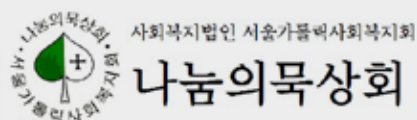
버린 사람 같이 무덤덤하게 받아드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난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져보았지만 해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법인에 입사하게 되고 ‘나눔의 묵상회’ 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오랜 시간 찾지 못했던 제가 제 자신에게 던진 질문의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해답 중에 하나가 바로 나눔을 통해 ‘순간순간을 기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나눔의 묵상회’ 피정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을 돌아보며 한 인간으로서 저의 존재에 대해 묵상을 통해 깊이 생각해보고,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자 하나님의 축복인지 알아가면서, 제게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냉담자로 지내던 제가 법인 사무국의 한 식구가 되고 ‘나눔의 묵상회’ 피정에 참여하면서 뒤늦게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깨닫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으며 살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직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도 많고 더 자세하게 알아가는 과정이지만 복음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소임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순간순간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눔의묵상회>는 복음의 실천적 핵심은 ‘나눔’이라고 하신故 김수환 추기경님의 영성에 따라,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 태도를 배우고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의 관계 정립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발견하는 교육 피정 프로그램입니다.

 **문의전화**
02-727-2547



2019년 나눔의묵상회 피정 안내

제134기 2019.9.20(금)~9.22(일)

제135기 2019.11.15(금)~11.17(일)

“우리 동네의 새로운 한끼100원 업체를 소개합니다.”

한끼100원 나누기 운동이란?

한끼 100원 나누기 운동은 가정, 가게, 회사, 학교 등에 저금통을 비치하여 매끼 식사 때 마다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자율적으로 100원을 저금통에 후원함으로써 나눔과 이웃 사랑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실천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나눔> 376호에서는 신림성모데이케어센터를 통해 참여하게 된 신규 업체들 중 3곳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코너를 통하여 다양한 한끼100원 업체를 소개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늘오리



아리차이



갱'S 주얼리



건강한 몸과 마음을 나누는 마늘오리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66길10, 2층

업종
음식점
(오리백숙, 훈제오리 등)

Q. ‘한끼 100원 나누기’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성당에 다니면서 센터장님과 아는 지내던 사이였는데, 이번에 한끼100원 저금통에 대해서 권유를 해주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한끼100원 나누기’ 운동에 참여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A. 이전에도 주민센터 등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곤 했는데 아무래도 가게를 운영하느라 바빠서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현금을 잘 갖고 다니지 않아서 저금통에 모이는 금액이 크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신앙인으로써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편안한 것 같습니다.

Q. 평상시 생각하는 ‘나눔’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함께 같이 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들도 그렇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그렇구요.

맛에 마음을 더하는 아리차이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길 4

업종
음식점
(짜장면, 탕수육 등)

Q. '한끼100원 나누기'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원래 신림성모성당데이케어 센터장님이 여기 단골이세요. 어르신들 가끔 모시고 오셔서 식사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다가 '한끼100원 나누기'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어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Q. '한끼100원 나누기' 운동에 참여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A. 매일 가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금통을 보시고 기부문화를 생각해보시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지폐문화도 없어져서 저금통에 금액이 많이 적어지기도 하였지만, 우선 많은 사람들이 '기부'라는 행위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 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못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다고 생각되어서요.

Q. 평상시 생각하는 '나눔'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다른 분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아닐까요? 많은 것들을 내어놓기 보다는 그냥 일상에서 작은 것들을 내어주는 마음, 우리들이 조금씩만 더 관심을 갖고 배려해 드리면 풍성해지는 그런 게 나눔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마음 갱'S 주얼리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7길 16, 102

업종
약세사리
(귀금속, 각종 굿즈 등)

Q. '한끼100원 나누기'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신림성모성당데이케어 센터장님이 동네에 단골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좋은 일 하시는 분이라고 평판이 자자하셨는데, 어떻게 저희 가게하고도 인연이 닿아서 '한끼100원 나누기'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어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Q. 이전에도 후원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A. 연말에 구세군 냄비나 모금함 등에 돈을 넣은 적은 몇 번 있지만 이렇게 정기적인 후원에 참여하는 건 처음입니다.

Q. 평상시 생각하는 '나눔'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누구나 항상 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첫걸음을 떼기는 어려운 것,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큰 도움을 못 드려서 조금 죄송스런 마음도 있지만, 이렇게 첫 시작을 끝낸 것에 의미를 두고 앞으로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원보고

후원보고

32 2019년 상반기 ‘한끼100원 나누기 운동’ 참여 업체

34 2019년 상반기 후원물품 접수 및 배분내역 보고

36 2019년 상반기 후원물품 배분 후기

“보내주신 소중한 물품들,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명단

38 후원자 명단

후원안내

44 후원방법 및 후원계좌

45 후원 신청서

2019년 상반기

‘한끼100원 나누기 운동’ 참여업체

(주)우리은행 가톨릭회관지점	낙원순대	모노헤어
(주)준포스터	낙지마당	목동어린이집
(주)한수산업	남도음식	무교동낙지
DC마트	남양부동산	미니스톱
가림꽃방	남원추어탕	미래수선
가톨릭출판사	녹색개발(신대방)	미성식당
강가네순대국	농장이야기	민속떡집
강기자	누리화원	밀칼국시
강씨네	다알리아미용실	바로본안경
강원축산	단빠	바삼탕
갯마을항아리	닭한마리	박정익
갱'S쥬얼리	대가감자탕	반포마차
건강나누리 닭한마리전문점	대가방	밝은아침한의원
경북상회	대박갈비	백암왕순대
경원집	대우약국	백정엽
경주상회	대추나무한의원	베스트문구
고석주정형외과	더본병원	병천순대종가집왕족발
고운비체한의원	동양반점	보라매종합보수
고은피부관리	동해상회	보탑갤러리
광진상회	두가	복가구
구룡약국	두꺼비부대찌개	봄봄미용실
구름산추어탕	두리정보통신	봉평옹심이
굿모닝약국	롯데마트	부산약국
그린마트	루디아(보석)	북경
그린부동산	린나이서대문	북한산윤가네포차
금강화점	마늘오리	사당동빈첸시오
금석당	만복축산	사당동성당
김석호내과	만석궁	사랑의치과의원
김성윤(인하나)	맵시나 콜렉션	삼우정밀
김여사 커피	먹고지고갈래	삼화상회
김영환피부과	명동안과	서대문아구찜
까페하랑	명동칼국수	서울왕돈가스
꿀까스	명성삼천리자전거	서울피혁
나눔의묵상회	명태어장	서일순대국



서초3단지어린이집
 선진상회
 성대골
 소복상회건어물
 속초붉은대게
 속편한내과
 솔자연식품
 송충식
 수라면옥
 수성밸브공업(주)
 수진골프존
 신광상회
 신대방약국
 신도장식
 신의주순대 신의주순대국
 신흥원
 씨채널
 아리차이
 아모레퍼시픽
 안경단아
 알레르망
 약손약국
 에스에스브이(주)
 역말닭한마리
 역촌골민속주점
 역촌동본당
 연천상회
 연희아이렉스안경
 영일전기
 영풍화원
 요셉이비인후과
 용궁칼국수
 용수수퍼
 우정미용실

원일정육점
 원조국수
 위드차이나
 원제과
 유가네통닭
 유진감자탕
 유진식당
 유진해물
 은평신협
 이가떡방
 이모네집
 이태리안경점
 인왕골 숯불
 잠실3동성당
 장미정육점
 장위떡볶이
 장위성당
 장정희
 장터쇼핑
 전원오리
 전주콩나물
 정동진수산
 정영락내과
 정우네 술집
 정정형외과
 정치과
 제중원약국
 주날개밀
 지니헤어라인
 지호한방삼계탕
 진달래미용실
 참이맛감자탕
 천안문
 천지인경희한의원

철물점
 청계산장수촌
 최가네생삼겹살
 최금희
 최정아미용실
 코바코초밥
 테라스크린
 통삼겹구이 6,900원
 트레이드맨
 파riba게트
 펄스캠생활과학
 평화기업사
 푸른문고
 풍년갈비
 풍년상회
 피자스쿨
 하늘땅물벗
 한결과학
 한마음생선
 한명희부동산
 한솔도시락
 해마로유통
 헤어닥터
 헤어라희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부품
 형제상회
 호텔노래방
 홍제그랑프리안경원
 홍제동성당
 횡성한우마을 정육점

2019년 상반기 후원물품 접수 및 배분내역 보고

(2019년 1월 ~ 6월)



1월
개인후원자
핸드백

후원수량 401개

후원시설

성심의집 지역아동센터, 송화어린이집, 늘푸른집, 헬렌켈러의집(단기보호시설), 미리암이주여성센터, 연화어린이집, 바오로교실보호작업장, 위기이주여성긴급보호센터



2월, 3월, 5월
로젠택배
무적화물

후원수량 15팔레트

후원시설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행운동성당데이케어센터, 위기이주여성긴급보호센터,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시립고덕양로원, 사랑손보호작업장, 바오로선교회,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중구장애인복지관, 성가정입양원



2월, 3월, 4월, 5월
SS오토서비스
엔진오일교체

후원수량 차량 20대

후원시설

새숲공부방, 위기이주여성긴급보호센터,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해화동성당데이케어센터, 시립고덕양로원, 비둘기주간보호시설, 신림성모성당데이케어센터,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구파발성당데이케어센터, 왕십리성당데이케어센터



4월
LG 생활건강
화장품(바디로션, 크리스탈린 쿠션, 오가닉토너 등)

후원수량 7,581개

후원시설

가톨릭여성복지협의회, 너울자리공동생활가정, 다사랑공동생활가정, 다향공동생활가정, 두레네공동생활가정,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바오로교실주간보호시설, 보금자리공동생활가정, 사랑손보호작업장, 사랑의집, 중구장애인복지관,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푸드뱅크마켓센터, 성지보호작업장, 씨튼해바라기의집, 청담서로함께, 하늘자리공동생활가정, 헬렌켈러의집 공동생활가정

※ 상기 자료는 1월 ~ 6월 중에 접수 및
배분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월
(주)랜드햇
모자

후원수량 2,000개

후원시설

서울가톨릭장애인복지협의회



4월
마리안느
임부복

후원수량 70대봉

후원시설

가재울성당, 구의동성당, 길동성당, 등촌7종합사회
복지관, 문정동성당, 바오로교실보호작업장, 비둘기
보호작업장, 서초동성당, 신내동성당, 신사동성당,
오금성요셉성당, 정릉4동성당, 청량리동성당, 포이
동성당



4월
개인후원자
생활가전

후원수량 에어컨, 선풍기, 티포트 등 28대

후원시설

춘천교구(강원도 산불 지원), 위기이주여성긴급보호
쉼터, 셋별자리, 상계동성당데이케어센터, 구파발성
당데이케어센터, 꿈터새터민지원센터



4월, 6월
(주)에스원
정장바지, 캐주얼남방

후원수량 정장바지 253벌, 캐주얼남방 214벌

후원시설

청담)서로함께, 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 구립강서구
직업재활센터, 중구장애인복지관, 등촌7종합사회복
지관, 동작종합사회복지관

2019년 상반기 후원물품 배분후기

“보내주신 소중한 물품들,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1

헬렌켈러의집 공동생활가정

신아코리아

후원품

친환경 주방세제

후원해주시는 친환경세제는 시설내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은 세제걱정은 안해도 될듯합니다.^^ 저희같은 소규모시설에서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시립고덕양로원 외 10개 시설

SS오토서비스

후원품

무료엔진오일교체 및 차량점검

(주)에스에스오토서비스에서 2월 21일 기관 방문하여 약 2시 가량 차량 5대의 엔진오일을 교체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어르신 차량지원을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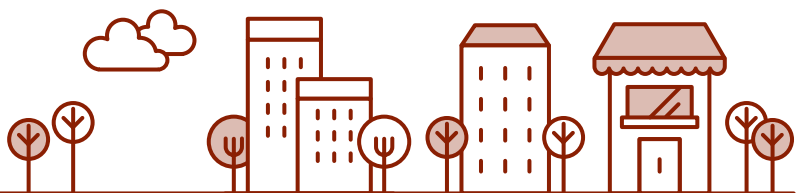
중구장애인복지관 외 10개 시설

(주)에스원

후원품

정장바지

후원해주신 신사용 정장바지를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출근할때 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질도 좋고, 디자인도 예뻐서 장애인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자 명단

총 2,299명

2019년 1월 1일 ~ 6월 30일

개인

강경애 강귀숙(김민진) 강규환 강금순 강금옥 강남옥 강민정 강범구 강병권 강상용 강석기 강석렬 강성숙 강성아
강세구 강수선 강수영 강순조 강순하 강신은 강연아 강영석 강영숙 강용모 강용화 강웅 강유진 강윤진 강인구
강인숙 강재순 강재연 강정현 강주언 강준호 강지영 강지예 강지혜 강진화 강풍자 강한다울 강현경 강현숙
강혜경 강혜경(이동준) 강혜진 강호진 강희 강희정 경다히 계춘순 고경숙 고광표 고금자 고도영 고명선(배준원)
고병섭 고성자 고세옥 고송희 고승환 고안나 고영주 고은경 고재용 고정수 고정원 고주현 고창숙 고혜숙 고혜순
고혜향 공명훈 공세훈 광도희 광선영 광성신 광순규 광안나(이희원 그레고리오) 광정숙 광철 구광석 구명선 구미희
구분현 구원희 구은순 구은정 구은화 구정영 구희진(조정자) 구희현 국경숙 권구종 권구택 권귀애 권근하 권기성
권미영 권미영 권병길 권병란 권병순 권병영 권보원 권분남 권성경 권성수 권성옥 권세희 권소현 권수정 권순영
권영민 권영범 권영신 권영조 권영희 권오삼 권오술 권옥주 권용수 권윤수 권윤희 권은경 권은영 권정은 권지수
권지혜 권진아 권진택 권태근 권태엽 권태중 권향숙 권혁매 권효순 금정란(안정우다윗) 금하영 기문상 기세용
길수현 김가민 김갑산 김강숙 김건영 김겸래 김경미 김경수 김경숙 김경순 김경순 김경희 김경희 김계명 김계연
김관수 김광수 김광재 김광호 김광희 김국원 김귀남 김규리 김규준 김근수 김금순 리디아 김기백 김기수 김기원
김기은 김길수 김길웅 김길자 김나영 김난숙 김남권 김남용 김남현 김남호 김대기 김덕기 김덕산 김덕선 김덕희
김도경 김도균 김도연 김도환 김도희 김동만 김동민 김동분 김동빈 김동수 김동우 김동우 김동현 김록수 김만수
김만호 김말이 김명란 김명수 김명재 김명주 김명희 김문규 김문자 김문정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선 김미숙
김미애 김미연 김미영 김미영 김미옥 김미용 김미정 김미지 김미현 김미형 김미혜 김민성 김민수 김민수 김민신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민형 김병근 김병석 김보경 김보숙 김복희 김봉기 김봉길 김봉재 김봉주 김삼순 김상규
김상미 김상미 김상민 김상숙 김상영 김상훈 김셋별 김서영 김서현 김석 김석구 김석철 김선경 김선미 김선여
김선영 김선자 김선정(최성환) 김선종 김선진 김선창 김선화 김설아 김설희 김성구 김성문 김성미 김성민 김성분
김성숙 김성애 김성윤 김성임 김성자 김성태 김성화 김성훈 김성희 김소영 김소영 김소윤 김송의 김수경 김수덕
김수로 김수민 김수연 김수영 김수정 김수진 김수진 김숙화 김숙희 김순복 김순이 김순자 김순정 김순희 김승국
김승찬 김시영 김시옥 김애경 김양희 김여정 김연이 김연중 김연희 김영권 김영남 김영대 김영록 김영률(김태윤
루치오) 김영삼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김영숙 김영실 김영심 김영옥 김영은 김영일 김영임 김영자
김영주 김영주 김영주 김영하 김영화 김예림 김예진 김예진 김옥분 김옥임 김완옥 김용운 김용철 김용태 김용태
(안은령레지나) 김우리 김우진 김운용 김원호 김유경 김유연 김유진 김유현 김윤상 김윤성 김윤수 김윤수 김윤수
김윤정 김윤정 김윤주 김윤진 김윤희 김은대 김은영 김은자 김은정 김은주 김은철 김은현 김은희 김은희 김이경
김이웅 김익환 김인선 김인섭 김인숙 김인옥 김인환 김일남 김자은 김재범 김재섭 김재영 김재정 김재준 김재홍
김재희 김점숙 김정남 김정린 김정미 김정미 김정민 김정수 김정수 김정숙 김정아 김정아 김정아 김정연 김정옥
김정애 김정원 김정은 김정은 김정임 김정자 김정주 김정하 김정현 김정현 김정현 김정형 김정혜 김정혜 김정화
김정환 김정훈 김정희 김정희 김정희 김제기 김종득 김종민 김종수 김종숙 김종옥 김종희 김주남 김주리 김주순
김주영 김주희 김주희 김준수 김중섭 김중호 김지경 김지니 김지민 김지애 김지애 김지연 김지은 김지택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진경 김진경 김진권 김진순 김진영 김진우 김진우 김진옥 김진자 김진택 김진택(김하늘) 김진택
(송행숙) 김진호 김진희 김진희 김차영 김창명 김춘길 김춘정 김태백 김태식 김태연 김태영 김태영 김태영
김태윤 김태중 김태훈 김태훈 김평숙 김한중 김한중 김한춘 김해숙 김현강 김현균 김현미 김현미 김현복 김현성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정성을 모아 더 큰 사랑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김현승 김현아 김현아 김현아 김현재 김현정 김현정 김현정 김현조 김현혜 김현희 김형기 김형기 김형길
김형남 김형섭 김형준 김형진 김혜례 김혜리(김재인) 김혜미 김혜숙 김혜숙 김혜영 김혜옥 김혜원 김혜원 김혜진
김호영 김홍길 김홍원 김화자 김화자 김화자 김환숙 김황윤(심월자) 김효경 김효숙 김효진 김효진 김희성 김희숙
김희순 김희영 김희영 김희원 김희정 김희정(이효진 바오로) 김희진 김희진 김희진 나금숙 나명상 나수미 나순임
나승아 나연희 나옥영 나은영 나지영 남경희 남다현 남명화 남명희 남미영 남방채 남범우 남봉근 남재순 노동식
노명래 노미경 노선갑 노숙인복지 노연숙 노영철 노영철(김애옥 제노베파) 노완수 노유리 노은경 노은자 노인숙
노정현 노정환 노주영 노현아 노혜경 노혜원 노황래 노희선 누마타요꼬 단혜영 도미영 도영찬 도윤상 도재민
도호경 라우영 류기연 류명숙 류성안 류시열 류영상 류정숙 류지연 류현수 린윽별 마금란 마리아 마춘기 맹보
맹승희 명동주 모영호 모윤희 문강희 문경수 문명정 문병호 문병희 문복순 문상숙 문성현 문성혜 문영미 문정원
(문지나) 문정윤 문정혁 문중호 민경서 민경호 민규원 민기준 민명숙 민선영 민윤경 민윤봉 민윤자 민종분
민혜선 박강준 박건희 박경 박경근 박경민 박경선 박경수 박경순 박경애 박광원 박규호 박금옥 박금자 박금자
박나미 박나윤 박노성 박동삼 박동욱 박동원 박동진 박동하 박동헌 박두신 박마리아 박마리아(차동환) 박명숙
박명순 박명화 박명희 박미미 박미선 박미옥 박미화 박미희 박병옥 박봉곤 박봉례 박비아 박상경 박상문 박상은
박상태 박상현 박상희 박상희 박서혜 박서희 박선미 박선영 박선영 박선희 박성록 박성수 박성수 박성영 박성은
박성호전세림 박성희 박소연 박소영 박소현 박소현 박수남 박수아 박수자 박수정 박수진 박수황 박수희 박숙희
박순숙 박순식 박순애 박순옥 박순옥 박순옥(임종명) 박순용 박순자 박승구 박승원 박시범 박시훈 박신자(이영찬)
박애자 박연희 박연희 박열매 박영규 박영달 박영범 박영순 박영애 박영자 박영준 박영희 박옥산 박용덕 박용득
박용명오영란부부 박용완 박원철(나은주) 박유경 박유선 박윤경 박윤아 박은수 박은영 박은주 박은주(박경진)
박재현 박재현 박정미 박정민 박정선 박정순 박정순 박정아 박정애 박정의 박정효 박정희 박종익 박종혁 박주현
박준용 박준우 박중순 박지민 박지영 박지영 박지윤 박진숙 박진숙 박찬석 박찬희 박창엽 박창한 박창해 박채윤
박철완 박춘환 박태현 박해숙 박행자 박혁기 박현 박현정 박현정 박현지 박형례 박혜숙 박혜숙(권기영) 박혜신
박혜영 박혜영 박혜원 박혜은 박홍규 박효선 박효정 박후영 반봉경 반성화 반재식 방성요 방안나 방지영 방홍엽
방효경 방효분 배경옥 배경혜 배기원 배상옥 배성일 배수경 배숙현 배옥정 배은숙 배은주 배재식 배정숙 배정애
배준학 배진 배진희 백경아 백민정 백선화 백성심 백숙선 백승민 백승은 백승현 백은영 백진학 백혜성 백화숙
변기섭 변수환 변순복 변영준 변완석 변정필 변춘자 변혜원 봉정우 부명국 빈철원 상지현 서경희 서두원 서란
서명해 서민영 서민철 서민호 서병기 서선옥 서성원 서수일 서애라 서영주 서예슬 서우정 서원아 서유나 서윤석
서은숙 서은영 서은희 서재완 서정림 서정성 서정애 서정자 서지수 서효원 서흥현 석병남 석정광 석혜정 선나은
선덕님 선우선 선현경 선희정 설성 성경순 성명아 성미현 성민재 성부용 성영숙 성우연 성은경 성정희 성지호
성필란 소재민 손경일 손경진 손금자 손말남 손병순 손석호 손영민 손월순 손지원 손한중 손혜미 송국혜 송기창
송명순 송미경 송미용 송병목 송수연 송숙임 송순자 송연미 송영숙 송영숙 송영옥 송원철 송은경 송은선 송은지
송재수 송정섭 송정의 송종필 송주는 송준호 송지섭 송진기 송진숙 송창권 송창용 송치호 송해정 송호림 송효섭
신경민 신경숙 신경훈 신동천 신명화 신미해 신상철 신상훈 신성균 신성애 신소영 신소영 신순옥 신양숙 신연식
신영자 신원 신원식 신인숙 신정민 신정순 신정윤 신주리 신태연 신학수 신현강 신현국 신현옥 신현준 신혜란
신혜선 심경희 심귀련 심상선 심율의 심재연 심재은(이승옥요한) 심현숙 심형진 심혜자 아네스펠릭스 안광인
안국진 안덕인 안만숙 안명옥 안병규 안상현 안선아 안성수 안성준(요한) 안수연 안수정 안승희 안연숙 안영옥

안윤주 안인숙 안정란(차광옥) 안정희 안준희 안태욱 안토니오보나 안학정 안형숙 안혜원(한정우안토니오) 안혜진
 안호기 안희종 양건 양명희 양미 양미숙 양성심 양승서 양승원 양영식 양영은 양윤지 양인수 양인옥 양일형
 양재혁 양지선 양지영 양지우 양지현(골롬바) 양춘식 양춘아 양현석 양혜경 양혜경 양혜명 양희진 어윤호 어은정
 엄경자 엄미라 엄현철 엄호식 여로즈마리 여수진 여은구 여은미 여태경 연승철 엄경숙 엄경숙 엄경훈 엄상록
 엄시종 엄우찬 엄태주 예혜진 오건희 오경은 오남주 오대일 오대희 오명주 오미경 오미경 오서운 오선자 오숙자
 오승훈 오요셉 오윤규 오윤선 오은희 오인화 오정숙 오정희 오주경 오지영 오춘이 오하탁 오현수현우 오혜선
 (주승택바드시리오) 오혜정 오혜진 오화영 옥건영 온영훈 왕정한 용상옥 우민경 우연수 우종건 우창원 원석희
 원순희 원은숙 원종숙 원혜령 원혜성 위성문 위수경 위은숙 유경숙 유경숙 유경옥 유경인 유경춘 유관희 유기열
 유명석 유미애 유봉상 유상열 유상훈 유성근 유소민 유소정 유수인 유숙 유순덕 유순자 유승애 유승엽 유승옥
 유신혜 유아름 유양숙(박영우) 유예리 유윤경 유은미 유은자 유은정 유은준 유은희 유정선 유정임 유정희 유정희
 유준성 유지승 유지연 유진영 유진은 유한석 유형만 유혜성 유혜연 유호경 유호선 윤경숙 윤길자 윤난영 윤동원
 윤동훈 윤매전 윤명옥 윤명자 윤병훈 윤복희 윤분다 윤석경 윤석란 윤석현(윤태연 스테파노) 윤성근 윤성자 윤소연
 윤송이 윤수근 윤승경 윤승용 윤영란 윤영민 윤영현 윤용섭 윤유은 윤은선 윤은숙 윤장석 윤재호 윤종구 윤종천
 윤지희 윤진미 윤태순 윤태영 윤태현 윤하정 윤한정 윤현숙 윤혜련 윤혜영 윤혜정 윤화숙(최덕준) 윤효숙 윤효주
 은영기 이가화 이갑동 이경남 이경란 이경숙 이경순 이경애 이경옥 이경은 이경자 이경자 이경자(주수도 베드로)
 이경진 이경철 이경현 이경혜(김승수) 이경화 이경훈 이경희 이계균 이계숙 이계현 이고운 이광자 이광점 이교선
 이국희 이귀호 이규녀 이규영 이규정 이규하(김명석) 이규혁 이근임 이근진 이금숙 이금실 이금자 이기명 이기목
 이기원 이기주 이길숙 이길자 이나리 이나미 이난희 이남주 이남희 이다예 이다정 이달래 이대연 이대철 이도경
 이동영 이동원 이동주 이동준 이두규 이두환 이룩한 이우리 이명숙 이명옥 이명옥 이명화 이명훈 이명희 이명희
 이무석 이문은 이미경 이미나 이미라 이미령 이미연 이미영 이미영 이미하 이미화 이미화 이민기 이민우 이범규
 (이다민) 이병률 이병화 이보 이상림(전대훈) 이상승 이상열 이상웅 이상원 이상직 이상철 이상철 이상호 이상호
 이서현 이서희 이석 이석(이원준 라파엘) 이석래 이석훈(이우정벨라데타) 이선근 이선미 이선아 이선영 이선영
 이선영 이선행 이선헌 이선희 이성근 이성룡 이성명 이성수 이성순 이성신 이세인 이소연 이소연 이소영 이송연
 이수연 이수연 이수진 이수진 이숙자 이숙자(이범덕) 이순금 이순덕 이순덕 이순복 이순분 이순임 이순자 이순주
 이순희 이순희 이승규 이승민 이승아 이승우 이승원 이승의 이승철 이신호 이안심 이애란 이애숙 이애숙 이양근
 이양순 이연승 이연희 이영란 이영미 이영수 이영숙 이영아 이영옥 이영은 이영조 이영종 이영주 이영주 이영주
 이영후 이영희(김정윤 라파엘라) 이에준 이오선 이오영 이옥재 이육국이도경 이육남 이육옥 이육진 이육호 이육환
 이육희 이우선 이우정 이우채 이우철 이원애 이원왕 이원자 이원준 이원평 이유상 이유선 이유정 이유진 이유희
 이윤수 이윤수 이윤우(신예찬) 이윤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숙 이은숙 이은순 이은영 이은영 이은영 이은인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혜 이은화 이은화 이은희 이이랑 이인구 이인미 이인숙 이인순 이인용 이인주 이일수
 이일용 이장 이장섭 이재경 이재근(임항진) 이재만 이재만 이재복 이재상 이재성 이재은 이재진 이재항 이재현
 이재홍 이재홍 이재화(윤준식 안토니오) 이재환 이점숙 이정국 이정란 이정민 이정선 이정선 이정숙 이정아 이정애
 이정원 이정은 이정은 이정은 이정자 이정진 이정하 이정화 이정환 이정훈 이정희 이정희 이재동 이재복 이재완
 이재홍 이종균 이종림 이종범 이종선 이종선 이종섭 이종원 이종임 이종찬 이종현 이주연 이주영 이주영 이주원
 이주윤 이주현 이주형 이지혜 이주화 이준혁 이준희 이준범 이준희 이준상 이지선 이지애 이지영 이지율 이지은
 이지후 이진아 이진을 이찬미 이찬화 이창걸 이창용 이창현 이창희 이창희 이채정 이철수 이철우 이초우 이춘배
 이춘식 이춘영(정훈) 이춘자 이춘자 이춘희 이충경 이태순 이태연 이태호 이한나 이한진 이해성 이해영 이향숙
 이향숙 이향순 이향아 이현경 이현규 이현미경이 이현수 이현숙 이현숙 이현숙 이현아 이현애 이현정 이현정

이현주 이현진 이현진 이현호 이형준 이해경 이해린(최익석 바오로) 이해민 이해배 이해성 이해숙 이해재 이해정
 이해진 이홍 이홍규 이홍범 이화연 이화정 이효경 이효림 이효상 이효영 이효정 이희배 이희옥 이희정 이희철
 인경환 인경희 인은희 임경은 임계영 임광재 임규덕 임난미 임병곤토마스 임병구 임상문 임석호 임성숙 임성숙
 임성연 임성택 임세희 임소영(전윤오니꼴라오) 임순의 임순천 임여정 임연희 임영진 임영희(김만일) 임옥연 임윤자
 임은아 임은희 임의자 임이순 임재진 임정수 임정실 임정연 임정은 임정희 임종국 임종천 임지성 임지연 임지현
 임진우 임해순 임혁진 임현숙 임현주 임현준 임형빈 임혜경 임혜연 임화남 임효선 장경희 장금주 장동화 장말순
 장명자 장명환 장미령 장복님 장선영 장선화 장성희(임갑표) 장소영 장소윤 장수영 장수정 장영준 장옥화 (이상집)
 장우진 장운상 장원영 장원용 장원종 장은경 장재숙 장재진 장재현 장정은 장지는 장직현 장학금 장한평 장현금
 장현진 장화정 장효정 장휘부 장희순 장희은 장희천 전경녀 전경아 전국일 전귀상 전대영 전명숙(최상근) 전명은
 전배문 전병돈 전성민 전성배 전성우 전수민 전수정 전수진(오욱진) 전연경 전용현 전자연 전정림 전정희 전종석
 전진경 전진숙 전해진 정경숙 정경애 정경인 정경진 정구훈 정국진 정기봉 정기성 정기영 정남숙 정다연 정도현
 정동기 정말래 정명자 정명화 정문석 정미란 정미자 정미주 정민경 정민희 정상규 정상윤 정석채 정석화 정선아
 정선영 정선이 정세라 정수경 정숙필 정순아 정순영(정종석) 정순재 정승명 정승일 정신수 정아름 정애경 정양순
 정양주 정여경 정열자 정영란 정영애 정영애 정영애 정영현 정영호 정옥이 정옥희 정용선 정원영 정유헌 정유선
 (손수영바오로) 정윤서 정윤재 정은순 정은정 정은희 정의식 정익균 정인경 정인경(강서영 베로니카) 정인경(강희연
 요한) 정인상 정인선 정인섭 정재윤 정재철 정정규 정종기 정주영 정지연 정지윤 정지홍 정진아 정진희 정진희
 정찬영 정찬중 정재용 정철동 정철현 정철호 정춘옥 정총자 정철성 정태옥 정태진 정태환 정태희 정학순 정학용
 정한중 정해균 정해진 정현수 정현철 정현태 정혜경 정호경 정홍희 정희선 정희은 조 클라우디아 조건현 조경자
 조계범 조광현 조규만 조금숙 조금순 조금연 조금양 조기인(송옥기) 조난영 조농진 조동석 조명선 조명자 조미숙
 조민영 조민자 조선희 조선희(김재일 바오로) 조성미 조성원 조성윤 조성임 조성지 조성필 조성훈 조세원 조수선
 조수정 조순석 조순자 조순희 조순희 조순희 조아라 조연경 조영관 조영민 조영진 조예림 조옥희 조원영 조원준
 조윤숙 조윤신 조은경 조은별 조은연 조인숙 조재행 조정숙 조정자 조정희 조지연 조진숙 조진순 조진희 조차희
 조태식 조혁진 조현규 조현주 조현지 조현화 조형섭 조혜선 조혜영 조희숙 조희윤 조희재 주동혁 주순린 주신경
 주은정 주일권 주장미 주춘자 주해숙 주현숙 주현우 주현정 주혜련 주화순 주희숙 주희영 지동규 지은이 지형
 진경희 진보라 진수근 진영아 진장복 진정우 진현정 차명희 차미경 차소정 차수경 차영옥 차영철 차은희 차현미
 채경자 채수훈 채점숙 채행찬 채현주 채혜연 천재옥 천화금 최강문 최경아 최광보 최광식 최광택 최근주 최길
 최나영 최득실 최명애 최미나 최미선 최미숙 최민정 최민해 최범수 최병기 최봉화 최상권 최석환 최선영
 (CHOISUN) 최선훤 최선호 최성자 최성희 최숙희 최순임 최순주 최승덕 최승이 최승철 최승호 최완숙 최양규
 최양원 최영우 최영희 최영희 최영희 최옥순 최옥희 최용순 최우현(정혜경 비비안나) 최원길 최원영 최원정 최원혁
 최유성 최유철 최윤기 최윤동 최윤석 최윤지 최은경 최은규 최은영 최은진 최인복 최자윤 최재경 최재원 최재현
 최정심 최정심 최정호 최정호 최종백 최종형 최준화 최종규 최지연 최지연 최진규(최세훈베드로) 최진명 최진선
 최창신 최창욱 최철원 최청애 최춘규 최한숨 최한희 최현 최현경 최혜란 최혜인 최혜정 최호영 최화수 최환주
 탁성훈 탁인석 편용준 표명애(표정하) 표미자 표윤수 표화순 하미용(이동현) 하민정 하유정 하정숙 하정숙 하정연
 하중수 하지영 하지현 한경란 한경미 한관수 한관표 한금숙 한기상 한남희 한리나 한명숙 한명순 한무리 한민수
 한봉순 한상두 한상빈 한상옥 한상현 한상혁 한성현 한성희 한소희 한수련 한순란 한순지 한승석 한연희 한영미
 한영철(정영애) 한유미 한유선 한윤희 한은경 한인숙 한장희 한재관 한재홍 한정숙 한정순 한정연 한정우 한정해
 한중란 한주희 한지선 한지현 한찬식 한창권 한창섭 한창현 한현옥 한혜정 함경숙 함금호 함영업 함윤희 함정인
 (유동훈 베드로) 함종식 허동환 허민 허상근 허수경 허순 허영부 허유민 허인 허자은 허진 현나래 현동욱 현순득

호성희 홍강훈 홍경숙 홍경화 홍교선 홍근숙 홍금숙 홍기옥 홍만표 홍문희 홍민정 홍민지 홍석기 홍성대 홍성무
 홍성우 홍성일 홍성희 홍수진 홍순임 홍승연 홍영석 홍영준 홍영지 홍영희 홍윤석 홍은영 홍은혜 홍재모 홍정희
 홍종숙 홍지윤 홍지혜 홍진희 홍현정 홍희정 황경희 황다연 황명선 황명희 황민욱 황변(황지현) 황보진아 황상선
 황석연 황성국 황성순 황성희 황소정 황언민 황유석 황유선 황유숙 황은숙 황은영 황인주 황점수 황정서 황진경
 황철성 황현근 황현성 황혜정 히아친타 CELINE CHELSEA

기업및단체

(주)대경네트워크 (주)바로크레디트대부 (주)비덴트 (주)파인글로벌 (주)홍진경 가우디움 가톨릭연극협회 가톨릭중등교육자회
 계성여자고등학교 카페하랑 나눔의 목사회 세무법인다원 영실업 영찬소프트웨어(주) 이엠케이 트레이딩 코퍼레이션
 자동차후원 주식회사 북촌 주식회사 영전 코벤아이러브 해뜨락어린이집 해피빈 화인정신과의원 (주)바로크레디트
 (재)바보의나눔 경동제약(주) 서울성모병원 성모자선회 (유)돌코리아

본당

가락2동성당 가락동성당 가회동성당 개봉동성당 개포동성당 거여동성당 공릉동성당 공향동성당 광장동성당 구로
 1동성당 구의동성당 구파발성당 금호동성당 길동성당 길음동성당 노량진성당 논현2동성당 논현동성당 대림동성당
 대방동성당 대치4동성당 도림동성당 도봉동성당 도봉산성당 동대문성당 동대문시장성당 동작동성당 둔촌동성당
 등촌3동성당 마장동성당 마천동성당 면목동성당 명동성당 명일동성당 목3동성당 목5동성당 목동성당 무악재성당
 문정2동성당 문정동성당 반포1동성당 반포4동성당 반포성당 발산성당 방배동성당 방이동성당 방학동성당 방화3
 동성당 보문동성당 불광동성당 사당5동성당 사당동성당 삼성동성당 삼성산성당 상계동성당 상봉동성당 새남터성당
 서교동성당 서대문성당 서원동성당 서초동성당 성내동성당 성북동성당 성산2동성당 성산동성당 세검정성당
 세곡동성당 송파동성당 수궁동성당 수락산성당 수색동성당 수서동성당 수유1동성당 수유동성당 시흥4동성당
 신당동성당 신도림동성당 신림성모성당 신사동성당 신사동성베드로성당 신수동성당 신월1동성당 신월동성당 신정3
 동성당 신정동성당 신천동성당 아차산성당 아현동성당 암사동성당 압구정1동성당 압구정동성당 양원성당 양재동성당
 양천성당 여의도성당 역삼동성당 역촌동성당 연신내성당 연희동성당 오금동성당 오금성요셉성당 옥수동성당
 왕십리성당 용산성당 우면동성당 우이동성당 우장산성당 월곡동성당 위례성모성당 이문동성당 이태원성당 자양2
 동성당 잠실3동성당 잠실7동성당 잠원동성당 장안동성당 종로성당 종암동성당 중계양업 중곡동성당 중림동성당
 중앙동성당 창4동성당 창5동성당 창동성당 청담동성당 청량리성당 청파동성당 태릉성당 포이동성당 풍납동성당
 한강성당 한남동성당 행당동성당 홍은2동성당 홍은동성당 홍제동성당 화곡2동성당 화곡본동성당 화양동성당
 후암동성당 흑석동성당

* 후원해주시는 분들 중 연락처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연락주세요.



문의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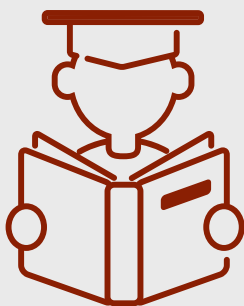
02-727-2242, 02-776-8810(문자 가능)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장학회 소개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는 5개의 장학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으로 지금까지 총 2,494명 (2019년 6월 30일 기준)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여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진로를 선택하는 등의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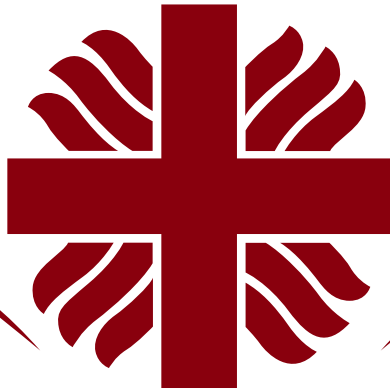
그러나 시중은행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탓에, 이자 수입만으로 기존의 장학금 지급 규모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사회의 낮은 곳에서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더 이상 경제적인 빈곤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학회	소개	지원대상
한가족 장학회	1996년부터 서울대교구 내 각 본당의 추천을 받아 정부의 도움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 가정 발굴, 경제적 지원 및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학생들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말가리다 장학회	故 서주희(말가리다)님의 기금 출연으로 2008년 발족,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정진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요안나 장학회	故 김연애(요안나)님의 기금 출연으로 2007년 발족, 가난으로 학업 수행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선교200주년 장학회	2002년 부터 새로운 터전을 찾아 온 북한이탈주민에게 장학금 및 생활비 등의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성모영보 장학회	관악지구 내 모금 활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2007년 발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13관악지구)

장학회	후원계좌	은행, 예금주
한가족 장학회	454-000754-13-022	우리은행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말가리다 장학회	1120-900-264444	
요안나 장학회	1005-201-275631	
선교200주년 장학회	454-000754-01-052	
성모영보 장학회	1005-501-210367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가족이 되어 주세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여러분이 기부하신 금액은 본 회 산하 약 24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및 본 회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 더욱 열심히 나누겠습니다.

후원방법



정기후원

자동이체(CMS) 신청을 통해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후원



일시후원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계좌이체, 직접전달로 후원



유산후원

남겨주신 소중한 자산으로 우리 회 산하의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장학회 등 운영



기업후원

기업의 사회공헌,
사회적 책임 차원의 후원



한끼100원 후원

가정, 가게, 사무실 등에서 '한끼100원 저금통'을 비치하여 식사 때마다 자율적으로 모금

정기후원

- 본 회 홈페이지
(www.caritasseoul.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소식지 후원신청서 우편 접수

일시후원 계좌번호

- 우리은행 454-000754-13-061
- 국민은행 875401-01-496652
- 신한은행 140-006-386646
- 농협 386-01-015424

후원문의

- 02-727-2254, 2242
- 02-776-8810

후원신청서

성명(세례명)

전화

휴대폰

주소

소식지 수령방법 ☐ 우편발송 ☐ 이메일(@) ☐ 수령안함

※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신청인은 예금주와 동일해야 합니다.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은행명

출금이체일

매월 ☐ 5일

☐ 20일

계좌번호

후원금액 ☐ 1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기타(원)

예금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출금통장에는 매월 약정일에 인출기관명 '서울카리타스'로 표시됩니다.

예금주

(서명)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 동의

- ① 수집 및 이용목적 : 본 회 회원가입, 자동이체 서비스 제공, 각종 사업정보 제공,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 ② 수집항목 :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 / [고유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 ③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④ 신청인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명례방
-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 등록/해지 사실통지 등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⑤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단,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수집에 동의하셔야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 제3자 제공

☐ 동의함

☐ 동의안함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을 통한 기부내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합니다.

동의하지 않으신 분은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을 통해서도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실 수 없으며, 본회가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는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 첨부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주민등록번호 -

☐ 동의안함

위와 같은 내용과 다름없이 후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예금주

(서명)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사제와 직원들이 매월 후원자 분들을 위한 미사와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보내주시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엽서

보내시는 분

이름 _____

주소 _____

우표
붙이는 곳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층
나눔 · 홍보팀 후원담당자 앞 ☎ 02-727-2254

카리타스(Caritas)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애덕, 자선' 을 의미합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0754-13-061

국민은행 875401-01-496652

신한은행 140-006-386646

농협 386-01-015424

후원문의 ☎ 02-727-2254

주소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층

이메일 caritasseoul@hanmail.net

전화 02-776-8810

팩스 02-754-5636

홈페이지 www.caritasseoul.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aritasseoul





카리타스인의 기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당신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일꾼으로는 부족하오나
당신의 도우심에 힘입어
당신의 자비를 바라는 이들을
정성껏 돌보게 하시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인내하며,
당신의 뜻을 올곧게 실천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게 하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안에서
고통 받고 계신 당신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감사의 기쁨을 간직하게 하시며
저희의 작은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당신의 크신 은총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기쁨 때나 지칠 때나 늘 저희와 함께 계시는
당신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세상에서는 더 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마침내 하늘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19 소식지 Vol. 376

발행일 2019년 8월
발행인 유경춘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기획편집 나눔·홍보팀
디자인 그래픽오션
표지글씨 방석영

소식지의 표지글씨는 서예가 방석영(세실리아) 작가님이 재능나눔 해주셨습니다.

Copyright@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



사회복지법인 Caritas SEOUL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주소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층 이메일 caritasseoul@hanmail.net

전화 (대표번호) 02-776-1314 (후원문의) 02-727-2254 팩스 02-754-5636

홈페이지 www.caritasseoul.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aritasseoul